

핫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일 하야시 일본 외무상과의 첫 통화에서 수천명의 조선인이 강제노역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 정의용, 하야시 일본 외무상과 통화

사도광산 등재 추진 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통화를 하고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 항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통화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인 강제노역의 아픈 역사를 외면한 채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함께 항의의 뜻을 표했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 현장인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후보로 추천하기로 지난달 28일 결정하고 이달 1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추천서를 냈다.

정 장관은 일본이 2015년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부터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오히려 일본 정·관계에서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해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본 정부가 이에 동조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밝혔다.

정 장관은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측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도 촉구했다.

(연합뉴스)

### 한병환, 부천시장 선거출마 공식화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10일 출판기념회 개최

지난 2018년부터 청와대 일자리 수석실에서 2년6개월 근무한 한병환(사진) 전 선임행정관의 출판기념회가 오는 10일 오후 4시부터 부천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부천시장으로 출마를 준비해온 한병환 전 선임행정관이 선거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하는 날이다.

한병환, 지역화폐로 경제를 읽다라는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전 선임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주관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정책과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했고 크게 3개의 주제와 에필로그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장은 우리 사회 미래의 환경적 측면에서 지역사회와 지방자치에 대해 기술했다. 두 번째 장은 이 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화폐'에 이야기로 지역화폐의 의미, 해외사례, 한국형 지역화폐 등 전문적인 내용을 에세이 형식으로 쉽게 풀어냈다.

마지막 장은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에 대한 한병환의 해설서 지방정부 운영을 책임지려는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에게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도입 이유와 배경·효과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도로 구성되었다.

한 전 선임행정관은 이 책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코로나



19 사태가 3년째 이어지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정책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데안 모색이야말로 지방분권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이라는 점이다.

사실 한국경제는 지난해 UN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꾸준히 양적 성장을 해왔다. 반면 고용문제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은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취약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 책의 에필로그는 원혜영·김경협·설훈·김상희·서영석 등 부천의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은혜·조정식 등 유력정치인 25인의 추천사라는 파격적인 구성으로 다른 출마예정자들을 압도하고 있다.

한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 1987년부터 부천에 거주하며 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 3선 시의원, 부천시 읍부조,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등의 경력을 쌓았다.

현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일터혁신TF위원이며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중앙선거대책본부 국민참여플랫폼 부분부장'으로 지난 12월 임명되어 활동 중이다.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공공정책학) 출신이다. 강성열 기자

### 인천시, 지원금 25만원 지급 오는 7일~4월8일까지 신청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포함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지원금을 7일부터 신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간접적 영업 손실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인천시 내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인 영세 자영업체는 약 27만6000곳으로 지원금은 총 690억원이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간접적 영업 손실 피해를 입고 매출이 부족했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해 정책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원 대상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당초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오는 4월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른 선제대응을 위해 이번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31일 이전 인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다.

신청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오는 7일부터 4월8일까지이며 방문의 경우 오는 21일부터 4월8일까지다.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인천시 및 사업장 소재지 군·구 홈페이지를 접속

해 신청할 수 있고 현장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접수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에 따라 지원금 수급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업무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기간 첫 주에 한해서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을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6번 자영업자는 2월7일, 2·7번은 2월8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대표자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인종삼 기자

### 평화·안보 정책에도 여성 참여 활성화 해야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

경기도 행동계획 수립 필요

경기도 평화·안보 정책의 여성 참여 활성화와 성평등 관점의 평화문화 조성을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경기도 지역행동계획으로 확대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경기도 지역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는 2000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분쟁 해결과 평화구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증진 및 성주류화 실현을 목적으로 채택된 결의안이다.

이에 회원국 98개국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했는데 우리나라도 1기(2014~2017)와 2기(2018~2020)에 이어 3기(2021~2023) 계획으로 11개 목표 아래 50개 실행과제를 수립했다.

재단은 중앙정부의 국가행동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1325호의 지역화를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부대 밀집으로 인해 군사주의 문화가 강하고 미군 주둔으로 인한 여성 인권 침해가 있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여성이 거주하는 등의 특징이 있어 이를 반영한 지역행동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경기도 지역행동계획 수립을 위해 △경기도 지역화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계획 수립과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민관군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경기도 성평등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성인지 관점의 평화인식교육 △젠더 관점 기반의 평화교육

강사 양성 △경기도 실정에서 여성·평화·안보와 관련된 문제들을 파악할 실태조사 및 연구, 이에 기반한 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제시했다.

안태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원은 "수년 전부터 경기도 여성시민사회를 중심으로 1325호의 경기도 지역행동계획 수립에 대한 요구가 있다"며 "경기도가 타 지자체에 앞서 선도적으로 군과 시민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성인지적 평화정책과 성평등한 평화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창 기자

### 경과원 동부권역센터 입지선정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대

광주시가 2022년에 신설되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동부권역센터 입지선정에 최종 확정됐다.

신설되는 동부권역센터는 중소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판로지원, 현장 애로 해결을 통한 성장기회와 현장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기업 종합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시는 동부권역 시군(남양주시·하남시·구리시·양평군·여주시)과 모두 경계를 접하고 있는 우수한 교통망

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역량을 강화시켜 상시적인 기업성장 동력 전지기 역할 수행하고 광교밸리와 판교밸리를 잇는 융복합 트라이앵글벨트 구축을 통해 동부권역 신산업성장 플랫폼 조성을 유치의 타당성으로 강조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달 2~18일 유치신청을 받아 28일 2차 대면 발표를 통해 31일 최종 선정됐고 앞으로 광주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실무 추진위원회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시는 2021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원 유치에 실패한 아쉬움이 있었으나 소병훈·임종성 국회의원, 임일영 광주시 의회의장, 도 및 시의원들의 센터 유



광주시가 2022년에 신설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동부권역센터 입지선정에 최종 확정됐다.

치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지 속에 센터 유치가 성공하게 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타격을 입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발점이 될 것이라

는 기대를 하고 있다. 신동원 광주시장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동부권역센터가 신속하고 안정적인 개소와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학모 기자

### 영종하늘도시 출퇴근길 정체 풀린다

해찬나래 지하철도 개통

2km 구간 8년 개통 못해

3일 오후 5시부터 해찬나래 지하철도가 개통되고 이를 연결하는 임시도로도 준공되면서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의 출퇴근길 교통 정체가 크게 해소되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일 해찬나래 지하철도 상부에서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남준 인천시장,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13년 11월 준공된 영종하늘도시 해찬나래 지하철도와 이를 연결하는 하늘대로는 개설된 후 8년 동안 시점

부근(제3연륙교~해찬나래 지하차도, 길이 약 2km)이 개통되지 못하면서 그동안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이 많은 교통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한곡도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들과 수차례 회의를 가진 후 지난해 12월 제3연륙교 1공구 시점 부근에 하늘대로와 영종대로를 연결하는 길이 480m, 폭 9m 규모의 임시도로를 착공. 이번에 완공함으로써 해찬나래 지하철도 개통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해찬나래 지하차도 개통과 임시도로 개설로 그동안 교통정체에 시달렸던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의 교통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준 인천시장은 "해찬나래 지하차도가 개통되고 임시도로도 개설돼 주민들의 교통 체증이 크게 해소되게 됐다"며 "이와 관련해 제3연륙교 또한 오는 2025년 개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종삼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일 해찬나래 지하철도 상부에서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남준 인천시장을 비롯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인천경제청)